201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공통문항 및 문과문항> 해설

공통문항

1. 출제방침

1) 문과와 이과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에 관한 문제를 출제한다.
2) 둘 이상의 지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3) 단순 암기나 도식적인 이해를 넘어선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4) 문장으로 서술된 자료와 함께 표와 그림을 제시하여 다양한 자료의 해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5) 고등학교 교과서의 자료를 지문으로 포함한다.

2. 출제유형 및 교과서 관련 여부 및 근거

1) 지문 제시형으로 출제한다.
2) 통합교과형으로 출제한다.
3) 한 문항을 출제하고 250~300자 분량으로 답안을 작성토록 하며 20점 만점으로 한다.
4) 제시문은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의 자료(사례 탐구 및 보충자료)에서 인용하였다. (가)의 원전은 <맨큐의 경제학>(1999)으로 현재 경제학 입문서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나)의 원전은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6)으로 중고교 교사들이 추천하는 도서에 늘 선정되는 작품이다. 통계표와 그래프는 사회교과서에 나온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3. 문항해설

1) 다양한 형태의 장르와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개념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명료하게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2) 2000년대 우리 나라 상황에 비추어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의 관계를 제시문을 통해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3) 제시문 (가)를 통해 경제성장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GDP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잘 파악하고, 제시문 (나)에서 제시되는 경제성장과 행복 및 가치 있는 삶의 관계에 대한 견해와의 차이를 적절히 이해하는지 묻는다.
4) 이와 더불어 (다), (라)에 나타난 우리 나라의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행복 및 가치 있는 삶의 관계에 대해 잘 이해하는지 묻는다.

4. 평가기준

1) 기본사항

① 8등급으로 채점: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으로 처리됨.
②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③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판정.
④ 100자 미만일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⑤ 동일한 문항을 2인 1조로 각자 채점.
가) 1차 채점의 결과 3등급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 채점위원 합의로 2차 채점 실시.
나) 2차 채점에서도 3등급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 3차 채점 실시.
다)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1인이 실지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⑥ 제목과 이름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가)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이 본문 내용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 형식 모두 F로 채점.
나)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이 본문 중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부분에서 2등급 감점.
다) 제목이 표기된 경우: 형식 부분에서 2등급 감점.

2) 형식의 채점
① 문장 구성과 표현 능력
가)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고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정도에 따라 1~2등급 감점.
나)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정도에 따라 1~2등급 감점.
② 분량
가) 300자를 초과한 경우 1~2등급 감점.
나) 200자 ~ 250자 미만 : 1등급 감점.
다) 100자 ~ 200자 미만 : 2등급 감점.
라) 100자 미만 : F

3) 내용의 채점
① 논제가 요구하는 답안의 방향: 경제성장이 행복한 삶과 가치 있는 삶의 전제조건임을 인식하고, 동시에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파악하여, 경제성장이 반드시 전 소득계층의 행복한 삶과 가치 있는 삶을 실현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필요함.
② 등급 부여 기준: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과 가치 있는 삶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경제가 성장하면 반드시 행복한 삶과 가치 있는 삶이 실현된다고 하는 등 제시문의 내용을 잘못 파악한 정도에 따라 점수 차감.

5. 예시답안

(가)는 한 국가의 경제 성장과 전 소득계층의 행복한 생활, 가치 있는 삶을 비례적 관계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 총생산 증가가 전 국민의 행복 증대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를 보면 절대적 빈곤은 감소했지만 상대적 빈곤과 지니계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나)에서도 공장 규모는 커지지만 직원들의 상황은 나빠지고 있고, 이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즉,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그 성장이 전 소득계층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문과문항 1

1. 출제방침

1) 문과와 이과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에 관한 문제를 출제한다.
2) 둘 이상의 지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3) 단순 암기나 도식적인 이해를 넘어선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4) 문장으로 서술된 자료와 함께 표와 그림을 제시하여 다양한 자료의 해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5) 고등학교 교과서의 자료를 지문으로 포함한다.

2. 출제유형 및 교과서 관련 여부 및 근거

1) 지문 제시형으로 출제한다.
2) 통합교과형으로 출제한다.
3) 한 문항을 출제하고 250~300자 분량으로 답안을 작성토록 하며 20점 만점으로 한다.
4) 제시문 (가)의 ①은 양귀자의 단편소설 "일용할 양식" (중학교 2학년 <국어>에 수록)과 (가)의 ②는 김탁환의 작품 해설 "내 마음의 거리, 원미동" <양귀자의 소설집 (원미동 사람들)에 수록>에서 발췌하였다. 제시문 (나)는 신문기사에서 발췌하여 수정하였다.

3. 문항해설

1) 서로 다른 장르의 두 제시문을 독해하고, 그로부터 공통점과 차이점을 유추해 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일반화, 추상화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한다.
2) 제시문 (가)는 원미동이라는 서민의 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세 소매점(형제슈퍼, 김포슈퍼, 싱싱청과물) 사이의 상권 경쟁을 묘사하고 있다. (가)의 ①에서는 형제슈퍼와 김포슈퍼 주인 사이의 경쟁과 둘 사이에서 심적 갈등을 겪는 이웃주민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가)의 ②에서는 싱싱청과물의 등장으로 형제슈퍼와 김포슈퍼 주인들이 그간의 갈등을 잠시 접어두고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경쟁자를 몰아내는 과정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3) 제시문 (나)는 골목상권을 둘러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의 사이의 경쟁으로 초래된 갈등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3자인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졌음이 서술하고 있다. 이 개입이 전통시장의 매출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기는 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정책의 부작용으로 구멍가게가 타격을 입고, 편의점이 가장 큰 이득을 보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은 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4. 평가기준

1) 기본사항
   ① 8등급으로 채점: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으로 처리됨.
   ②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③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판정.
   ④ 100자 미만일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⑤ 동일한 문항을 2인 1조로 각자 채점.
가) 1차 채점의 결과 3등급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 채점위원 합의로 2차 채점 실시.
나) 2차 채점에서도 3등급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 3차 채점 실시.
다)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1인이 실지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⑥ 제목과 이름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가)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이 본문 내용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 형식 모두 F로 채점.
나)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이 본문 중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부분에서 2등급 감점.
다) 제목이 표기된 경우: 형식 부분에서 2등급 감점.

2) 형식의 채점
① 문장 구성과 표현 능력.
가)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고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정도에 따라 1~2등급 감점.
나)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정도에 따라 1~2등급 감점.
② 분량
가) 400자 초과 : 1~2등급 감점.
나) 300자~350자 미만 : 1등급 감점.
다) 200자~300자 미만 : 2등급 감점.
라) 100자~200자 미만 : 3등급 감점.
마) 100자 미만 : F.

3) 내용의 채점
① 논제가 요구하는 답안의 방향
가) (가)와 (나)에 나타난 갈등의 공통점.
- 갈등이 사회 구성원(구체적으로 유통업체) 간의 경제적 갈등이다.
- 두 경우 모두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나) (가)와 (나)에 나타난 갈등의 차이점.
- 경쟁하는 유통업체가 비슷한 규모인가 아주 다른 규모인가가 다르다.
- 경쟁구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다른 유통업체인가 정부인가가 다르다.
- 개인의 심리적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르다.
② 등급 부여 기준
가) 가장 우수한 답안은 위에서 언급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서술한 답안.
나) 위에서 언급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포함한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점.
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창의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채점자의 재량에 따라 일정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 예시답안

(가)와 (나)의 갈등은 모두 상업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라는 점과 갈등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하

지만 몇 가지 차이점 역시 존재한다. 첫째, 갈등이 일어나는 범위의 크기가 다르다. (가)에서 갈등의 장소는 원미동이라는 특정 마을인데 반해, (나)의 경우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둘째, 갈등 주체들의 관계가 다르다. (가)의 갈등은 엇비슷한 동네 가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반해, (나)의 갈등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거대한 힘을 가진 기업과 동네 가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평등한 주체들 사이의 갈등이다. 셋째, (나)의 경우 갈등의 구도가 정부라는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변화한다. 이에 반해 (가)에서는 그러한 제3자의 개입을 찾아볼 수 없다. 넷째, (가)에서 갈등은 개인의 심리적 갈등을 수반하는 데 반해, (나)는 그러한 개인적 차원의 갈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문과문항 2

1. 출제방침

1) 문과와 이과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에 관한 문제를 출제한다.
2) 둘 이상의 지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3) 단순 암기나 도식적인 이해를 넘어선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4) 문장으로 서술된 자료와 함께 표와 그림을 제시하여 다양한 자료의 해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5) 고등학교 교과서의 자료를 지문으로 포함한다.

2. 출제유형 및 교과서 관련 여부 및 근거

1) 지문 제시형으로 출제한다.
2) 통합교과형으로 출제한다.
3) 한 문항을 출제하고 250~300자 분량으로 답안을 작성토록 하며 20점 만점으로 한다.
4) (나)는 신문기사에서 발췌하여 수정한 글이고, (다)는 작문의 실제 예로서 제시된 "모두를 위한 디자인" <지학사 (화법과 작문 1) pp.238-239>이라는 설명문에서 발췌한 글이다. (라)는 교과서의 본문으로 실린 설명문 <금성출판사 (사회) p.193>에서, (마)는 참고서의 본문 <두산동아 (High Top 생물 Ⅱ) p.121, pp.136-137>으로 실린 설명문에서 발췌한 글이다.

3. 문항해설

1) 주어진 자료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관점을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그러한 지식과 관점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제시문 (나)에 나타난 갈등은 대형 유통업체와 소형 유통업체의 갈등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극대화됨으로써 소형 유통업체들이 몰락할 지경에 이르자 정부의 개입으로 전통시장과 편의점은 일단 살아나고 있지만 구멍가게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
3) 제시문 (라)에서 활용할 만한 내용은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일어나는 변화는 둘이 공존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에 동화되거나 둘이 새로운 모습으로 융합된다는 것이다.
4) 제시문 (마)에서 활용할 만한 내용은 첫째, 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순응하거나 적응하기도

한다는 것, 둘째, 한 공간에서 둘 이상의 종이 경쟁하면 한쪽만 살아남기도 하지만 분서의 형태로 둘이 모두 살아남기도 한다는 것이다.

5) 제시문 (다)의 '보편적 디자인'이 추구하는 정신은 정상이라고 간주되는 다수와 함께 비정상이라고 간주되는 소수의 만족도 추구하는 정신, 즉 소외되는 소수가 없도록 모두의 만족을 추구하는 정신이다.

4. 평가기준

1) 기본사항

① 8등급으로 채점: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으로 처리됨.

②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③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판정.

④ 100자 미만일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⑤ 동일한 문항을 2인 1조로 각자 채점.

가) 1차 채점의 결과 3등급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 채점위원 합의로 2차 채점 실시.

나) 2차 채점에서도 3등급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 3차 채점 실시.

다)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1인이 실지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⑥ 제목과 이름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가)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이 본문 내용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 형식 모두 F로 채점.

나)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이 본문 중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부분에서 2등급 감점.

다) 제목이 표기된 경우: 형식 부분에서 2등급 감점.

2) 형식의 채점

① 문장 구성과 표현 능력.

가)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고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정도에 따라 1~2등급 감점.

나)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정도에 따라 1~2등급 감점.

② 분량.

가) 400자 초과 : 1~2등급 감점.

나) 300자~350자 미만 : 1등급 감점.

다) 200자~300자 미만 : 2등급 감점.

라) 100자~200자 미만 : 3등급 감점.

마) 100자 미만 : F.

3) 내용의 채점

① 논제가 요구하는 답안의 방향.

가) 제시문 (나)에 나타난 갈등을 해결하는 주된 방향은 제시문 (다)의 '정신'에 따라 같은 상권을 두고 경쟁하는 크고 작은 유통업체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나) 제시문 (라)와 (마)에서 파악한 것을 활용하면, 제시문 (나)에 나타난 갈등을 해결

하는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유통업체가 점포의 위치, 고객층, 영업시간, 취급 품목, 고객 우대 전략 등의 특성을 각자의 처지에 맞게 특화하여 같은 상권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유통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일부를 양보하고 다른 일부를 취하는 방식으로 타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생물의 순응이나 적응과 같은 변신이 크고 작은 규모로 일어나야 할 것이다.

② 등급 부여 기준.

가) 제시문 (나)에 나타난 주요 갈등이 대형 유통업체와 소형 유통업체 사이의 갈등임을 파악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다.

나) 제시문 (다), (라), (마)에서 필요한 개념을 잘 파악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다.

다) 논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해결의 방향을 제시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다.

5. 예시답안

(다)의 보편적 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디자인을 뜻한다. 따라서 (나)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라)와 (마)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라)에서 제시한 문화변동의 양상 중 '문화공존'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각 문화가 각각의 고유성을 잃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나)의 경우에도 각 경제주체가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잃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마)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개체군이 비슷한 생물들이 함께 생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분서'를 언급하고 있다. 분서란 생활공간이나 먹이, 활동시간을 달리하여 경쟁을 피하는 방식이다. 이를 (나)에 적용하면 주요 고객층, 품목, 운영시간 등을 조정하여 모든 상권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